

# 계열 같아도 대학원 등록금 대학별 '6배차'

천차만별 대학원 등록금 '눈길'  
카이스트 인문계열 연 1082만원  
자연과학·공학서도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해외 유학길도 막히며 국내 대학원이 때 아닌 인기를 끌면서 대학원 등록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대학원 중 가장 등록금이 비싼 일반대학원은 연 1082만원을 기록한 한국과학기술대(카이스트·KAIST) 인문사회계열로, 카이스트는 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공학·의학 등 5개 중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3개 계열에서 타 대학 동 계열 대학원 중 가장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에서 같은 계열이라도 대학마다 연 등록금은 올해 최대 6배까지 차이났다. 174개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카이스트로, 올해 등록금은 1082만원이다. 동계열 가장 저렴한 등록금을 기록한 한국전통문화대(159만원)보다 6배 넘게 높았다.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2위인 가톨릭대(543만원) 보다도 2배 가량 높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는 특수대학원에 속해 있는 경영대학원(MBA) 과정이 카이스트에서는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로 속해 일반대학원 평균 등록금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계열별 대학원 등록금 상위 5순위>

순위	학교	인문사회	학교	자연과학	학교	예체능	학교	공학	학교	의학
1	KAIST	10,820,656	KAIST	9,559,000	연세대	6,901,367	KAIST	9,546,675	고려대	8,646,000
2	가톨릭대 제2캠퍼스	5,427,000	가톨릭대 제2캠퍼스	7,181,094	중앙대 제2캠퍼스	6,845,000	성균관대	6,973,027	중앙대	8,118,000
3	이화여자대	5,220,461	성균관대	6,816,137	이화여자대	6,727,192	중앙대	6,938,000	성균관대	8,033,000
4	성균관대	5,217,987	중앙대	6,464,565	중앙대	6,678,502	고려대(세종)	6,897,000	연세대	7,793,000
5	광운대	5,125,540	단국대 제2캠퍼스	6,425,868	한양대(ERICA)	6,668,919	고려대	6,881,730	연세대(미래)	7,793,000

단위: 원

며 '카이스트는 대학원생 정부지원금이 월등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등록금은 훨씬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2위 대학은 가톨릭대(제2캠퍼스)로 543만원을 1년 등록금으로 받고 있다. 이어 ▲이화여자대(522만원)▲성균관대(522만원)▲광운대(513만원)▲숭실대(512만원)▲차의과대(511만원)▲중앙대(510만원)▲단국대(502만원)▲한양대(502만원) 등이 상위권 10개 대학에 들었다.

카이스트는 자연과학계열에서도 가장 비싼 등록금인 956만원을 받고 있다. 국내 대학 일반대학원 중 자연과학 계열이 개설된 대학은 134곳이다. 이어 ▲가톨릭대(제2캠퍼스)(718만원)▲성균관대(682만원)▲중앙대(646만원)▲단국대(제2캠퍼스)(643만원)▲고려대(세종)(631만원)▲아주대(628만원)▲가톨릭대(620만원)▲중앙대(제2캠퍼스)(611만원)▲차의과대(610만원) 순이다.

의학·공학계열과 함께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진 예체능계열 일반대

학원 평균 등록금은 연 470만원으로, 올해 가장 높은 등록금을 기록한 대학은 연세대(690만원)다. 연세대는 올해 서울권 주요 대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록금인 893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단위에서도 평균 등록금 1위인 한국산업기술대(899만6000원)에 이은 등록금 상위 2위 성적이다.

중앙대 제2캠퍼스는 예체능계열 등록금 1위인 연세대와 근소한 차이로 2번째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대학원 예체능계열 등록금은 ▲중앙대(제2캠퍼스)(685만원)▲이화여자대(673만원)▲중앙대(668만원)▲한양대(ERICA)(667만원)▲홍익대(제2캠퍼스)(664만원)▲경희대(660만원)▲단국대(659만원)▲국민대(658만원)▲홍익대(651만원) 순으로 10개 대학 모두 650만원~690만원 사이에 연 등록금이 형성돼 있다.

국내 132곳의 공학계열 일반대학원에서도 가장 높은 등록금을 거둔 곳은 카이스트로 연 등록금은 954만원이다. 공학계열에서 가장 등록금이 저렴

한 한국전통문화대(189만원)와 5배 차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697만원)▲중앙대(694만원)▲고려대(세종)(690만원)▲고려대(688만원)▲한양대(688만원)▲한양대(ERICA)(688만원)▲연세대(688만원)▲이화여자대(680만원)▲연세대(미래)(672만원)가 공학계열 등록금 상위 10위에 들었다.

의과계열은 국내 대학 일반대학원 49곳에 개설돼 있으며, 평균 등록금은 631만원이다. 고려대는 의과계열 등록금 상위 1위로 865만원을 받고 있으며, ▲중앙대(812만원)▲성균관대(803만원)▲연세대(779만원)▲연세대(미래)(779만원)▲한양대(778만원)▲경희대(777만원)▲단국대(제2캠퍼스)(772만원)▲이화여자대(770만원)▲인하대(759만원) 순이다.

올해 국내 대학 일반대학원의 계열별 1년 등록금은 각각 ▲인문사회 380만원 ▲자연과학 449만원 ▲예체능 470만원 ▲공학 474만원 ▲의학 631만원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호서대 11대 총장에 김대현 박사 선임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21일 이사회에서 호서대 제11대 총장으로 김대현 박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호서학원 이사회는 이날 호서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전 예체능대학장 김대현 박사의 총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선임 배경에 대해 "대학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 준비 및 학사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대현 총장은 경희대 영어영문학과와 한양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5년 독일 Ruhr-Univ. Bochum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미래교육원 내년도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세종대 미래교육원이 2021학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1일 세종대에 따르면 2021년도 모집은 ▲호텔경영(식음료+경영과정) ▲외식경영(제과제빵+경영과정) ▲식품조리(호텔외식조리학과과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등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입학 지원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 산업부 "월성1호기 폐쇄 감사결과 유감"

"부정적 조작, 관여 없었다" 반발  
에너지전환 정책 지속 추진 강조



월성1호기 전경.

/연합뉴스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면서 "경제성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

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

해서는 반발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절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학교법인 건국대 산하 건국AMC가 '광진형 착한임대인 상생협약식'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건국대

## '착한임대 캠페인' 건국AMC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표창장

학교법인 건국대는 산하 수익사업체 건국AMC가 지난 20일 서울시 광진구청에서 열린 '광진형 착한임대인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임대료 인하 등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노원구민에 문화예술공연

삼육대가 오는 22일부터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예술에(愛) 산책로(路) 한바퀴'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하고, 노원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삼육대가 지난해 노원문화재단과 맺은 산학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 3분기 수출입 물동량 14.6% 감소

총 3억879만톤... 코로나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둔화로 올해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1년 전보다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총 3억879만톤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3억6176만톤)보다 14.6%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연안 물동량은 건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모래 물동량이 급증한 데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5046만톤)보다 0.5% 늘어난 5073만톤을 나타냈다. 이를 포함한 3분기 전체 물동량은 모두 3억5952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1222만톤)보다 12.8%

감소했다. 다만 지난달만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한 1억 2221만톤을 기록해 7~8월보다는 감소 폭이 둔화했다.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719만TEU)보다 2.0% 감소한 705만TEU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됐지만 2분기(4.4%)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작았다. 이 기간 수출입은 2.3% 감소한 404만TEU, 환적은 1.6% 줄어든 297만TEU로 집계됐다.

화물이 실린 적(積) 컨테이너와 비어 있는 공(空)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각각 0.9%, 6.7% 줄었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 기준으로는 17.3% 감소한 1만2243만톤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4.6% 감소한 518만TEU, 광양항은 4.9% 감소한 53만4000TEU였다. 인천항은 연초에 개설한 중국, 베트남 항로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어난 85만2000TEU를 기록했다.

/한용수 기자